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
현불회·구독신청 02-2004-8212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0월 16일)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조계종은 11월 4일 총본산 조계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를 위한 추모위령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6명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극락왕생 발원"…불교 '이태원 참사' 상처 보듬다

조계종, 11월 4일 희생자 추모 위령법회 봉행

글=송지희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들에게 제불보살님의 보살핌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때 이른 추위 속 시린 바람이 비통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다. 이태원 참사 6일 후인 11월 4일. 묵직한 타종소리가 침묵에 잠긴 조계사를 일깨웠다. 경내에 운집한 500여명의 스님과 대중들은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영가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의식은 우리 사회를 위로하는 치유의 손길로 화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는 굳건한 발원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참석해 영단에 헌화하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이 이날 총본산 조계사에서 봉행한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를 위한 추모위령법회'는 참사 희생자 156명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시에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상실감을 위로하는 치유의 법석이기도 했다.

위령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주요 종정기관장과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 전국비구니회, 조계사, 봉은사 등 수도권 주요 사찰 주지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참석했다.

명종 타종으로 시작된 법회에서 참석대중들은 삼귀의·반야심경 봉독에 앞서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애도의 심경은 헌화와 분향으로 이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영가단에 헌화했고, 종회의장 정문·호계원장 보광·포교원장 범해·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부회장 초격·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분향으로 애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짧은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둘씩 밝혀질 때마다 슬픔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간다"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킬 수 있었던 생명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으며 물질적 이익보다는 생명과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확고한 의식이 바로서야 한다"며 "추모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통해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야말로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다짐이라는 당부다.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화를 하고 있다.

진우 스님 "사회안전망 구축" 당부
윤석열 대통령 내외 참석해 '애도'
인묵 스님 집전으로 위령의식 엄수
500여 사부대중 참석해 영가 추모
조계사, 희생 영가 49재 봉행키로

이어 진우 스님은 "불교계는 한량없는 책임감으로 유명을 달리한 영가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은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 이웃들이 함께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책임지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모메시지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딸을 잃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의 가늠할 수 없는 슬픔에 마음이 먹먹하기만 하다. 그 어떤 말로도 슬픔을 대신할 길이 없고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저와 정부는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있게 사고를 수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슬픔과 아픔을 함께 어루만져주시는 불교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위령의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집전하는 가운데 20여 분간 엄수됐다. 의식이 이어지는 동안 참석자들은 합장으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일순간에 유명을 달리한 영가들이 두려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부처님 자비광명에 안기어 극락세계로 길 떠나길 기도한다"며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이 참담함을 딛고 일어나서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다독이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부처님 전에 발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이날 위령법회를 시작으로 매주 사시기도 직후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를 위한 49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이재는 11월 11일, 삼재는 11월 18일, 사재 11월 25일, 오재 12월 2일, 육재 12월 9일, 칠채(49재)는 12월 16일 봉행된다. 〈관련기사 2면〉

꽃보다 예쁜 딸 죽음 슬퍼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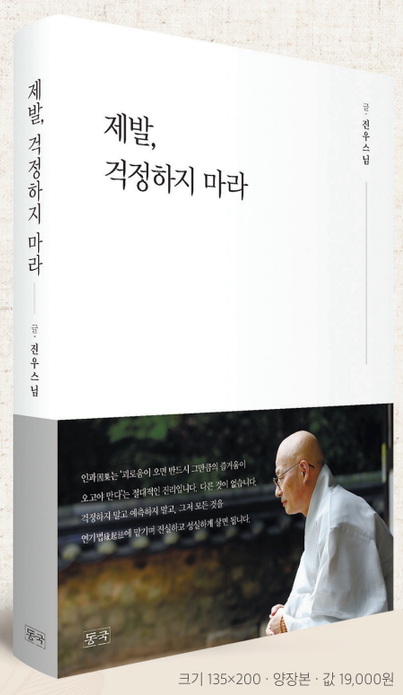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며–

청천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찌 경제대국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 골목길에서 155명의 청춘이 피지 못하고 한 순간에 꺾이는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꽃보다 예쁜 내 딸아
오늘은 하늘도 울고, 바람도 울고, 온 국민들이 너희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세상에 피었다가 바로 지는 꽃이 있더냐?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 짧았구나.
백합꽃보다 순결하게 웃는 너의 미소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장미꽃보다 더 예쁜 너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보배를 얻은 양 마냥 자랑스러웠다.
아침에 고운 옷을 골라 입고 밝은 웃음을 보내며 "시월의 마지막 밤을 즐겁게 보내고 오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하고 떠난 네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구나.
아까운 내 딸의 청춘아
아비가 네가 간 길을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천 번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니다. 거짓이다. 꿈이다.
극락조가 허공 속으로 영영 날아가 버렸으니 이제 누구의 손을 잡고 오손도손 이야기 하냐.
사랑하는 딸아, 정녕 너는 가을 낙엽보다도 먼저 아비를 남겨두고 떠나갔구나.
슬프구나. 온 국민들은 너희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어야 했는데 못해줘서 변을 당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미안하다. 죄송하다."하며 애통해 하고 있다.
꽃보다 예쁘고 사랑스런 딸아,
그래 잘 가거라. 슬픔이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두 손을 합장하여 "원왕생 원왕생" 불러본다.

김형중(시인, 문학평론가)

제발,
걱정하지 마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전하는
희망과 용기의 법문!



크기 135×200 · 양장본 · 값 19,000원

괴로움이 오면
반드시 그만큼의 즐거움이 오고야 만다.

오랜 수행과 전법으로 이뤄진 깨달음이 푸근한 말투로, 은은한 미소로 손 내미는 책!!
불교의 핵심이자 행복의 비결인 '인과因果'의 도리로 전하는 진우스님의 지혜.

"헐떡거리고 비풀어지는 건 항상 우리 마음일 뿐, 실상實相은 언제나 평온하고 반듯하니
제발,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평정하게 다스리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을 연기법緣起法에 맡기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인과를 굳게 믿고, 스스로 마음의 평정하게 다스리며 대자유를 누리십시오."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진우스님의 지혜를 법보시하세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Tel 02-2264-4714 Fax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

도서출판 동국